

한국의 구법승

6. 원족 스님

7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경쟁관계는 치열해 졌다. 삼국은 국력을 극대화해 정세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문화역량을 키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7세기 초 중국 구법승들의 활동도 보다 활발해 지는데 원광 스님 이후 627년 경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원족 스님(613~696)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남북조 교학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종파불교가 형성됐으며 천태종을 필두로 화엄종과 법상종이 형성돼 중국교학의 정립기를 맞이했다. 원족 스님은 이 시기 새로운 교학의 진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원족 스님은 유학 후 귀국하여 활동한 원광, 자장 스님과 달리 신라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머물며 사상을 선양했다.

원족 스님은 신라 진평왕 35년(613)에 신라 왕족으로 태어났다. 영민했던 원족 스님은 출가의 길을 택한다. 원족 스님이 언제 중국으로 갔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15세인 627년 고승들을 찾아 수학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쯤 중국으로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사상을 익히고 경전을 구하기 위해 대장정을 나선 때였다. 원족 스님은 처음 법상 스님과 승변 스님 등 섭론의 대가들에게 수학했다. 이들은 당시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화엄종을 이룬 지엄 스님이나 법상종의 개창주 현장 스님도 이들에게 수학했다.

원족 스님은 총명해 많은 글도 한번 들으면 모두 기억했다고 한다. 원족 스님은 정관 연중(627~645)에 당 태종의 허락을 얻어 왕도의 원범사에 주석했다. 그리고 비담·성실·구사·비바사 등 논서를 익히고 화엄·법화 등을 두루 익혔다. 또 이시기 뛰어난 스님들이 그러하듯 여학도 널리 익혀 범어를 비롯한 6개 국어에 통달했다고 한다.

645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새로운 경론을 가지고 귀국하자 중국불교계의 교학 분위기는 크게 바뀐다. 현장 스님이 <유가론>과 <성유식론>으로 대표되는 유식의 새로운 경전을 번역해 소개할 때 원족 스님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들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했다. 여기에는 원족 스님이 능통했던 여학과 그동안 익힌 유식의 기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송고승전>에는 재미난 일화가 전해진다. 현장 스님이 규기 스님에게 전수하는 유식론과 유가론 강의를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마루 밑에서 도청해 규기보다 먼저 대중들을 모아 강의했다는 기록이다. 원족 스님이 규기 스님보다 빨리 새 논서를 이해하고, 자신이 익혔던 섭론을 바탕으로 새로

운 유식을 전개한 것을 비방하기 위해 만든 일화다.

5조 홍인 스님이 아밤에 범맥을 해능에게 주고 남쪽으로 가라고 한 것이라든지, 지공-나옹 선사로 이어지는 범맥을 그 직계제자들이 무학 스님이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옆에도 못있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 스님의 직계제자인 규기 스님은 뛰어난 원족 스님을 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에 전해진 부처님의 법이 동쪽 신라로 가는 것을 두려워 한 결과일 것이다.

고익진 선생님은 <한국고대불교사상사>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규기(632-682)는 현장이 전래한 호법(Dharmapaala 530-561) 계통의 새로운 유학사상에 입각해서 법상종을 세운 사람이며, 원족과는 여러모로 학해(學解)에 대립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송고승전>의 모욕적인 기술은 그 파에서 원족을 비방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고 표현했다.

신라 왕족 출신, 총명함 드러내 6개 국어 능통, 당대 불교 섭렵 현장 스님의 <성유식론> 이해 규기 보다 먼저 대중 강의해

<해심밀경소> 신라불교 3대 저자 출신 성분 넘어 중국불교 이끌어 제자들 신라법상종 형성에 기여

아무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원족 스님은 658년 서명사가 낙성되자 사찰에 대덕으로 초빙된다. 서명사를 중심으로 원족 스님은 <성유식론>을 비롯한 많은 유식학의 저술을 펴내 현장 스님의 신역 불교를 널리 퍼는데 이바지 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실력이 뛰어나면 현지인의 시기를 받기 마련. 원족 스님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자, 그 제자인 규기(龜基) 일파가 강하게 반발했다. 확인 결과 원족 스님의 지적이 정확했음이 밝혀졌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족은 종남산에 암자를 짓고 8년 동안 칩거했다. 671년 무렵은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하던 때로 이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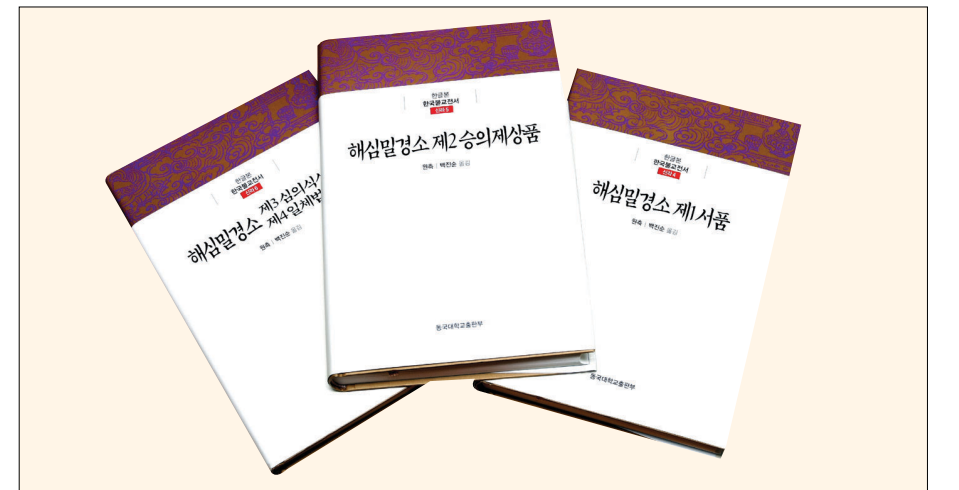
이후 다시 서명사에 돌아온 원족 스님은 축천후후의 지원을 받고 후학들에게 <성유식론>을 강의하고 지도했다. 신라 신문왕은 여러차례 원족 스님의 귀국을 요청했으나 축천후후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시안(西安) 흥교사에 있는 원족 스님 사리탑, 현장 스님의 탑을 중심으로 왼쪽이 규기 스님의 사리탑, 오른쪽이 원족 스님의 사리탑이다.



사리탑 내에 모셔진 원족 스님의 상(사진 왼쪽)과 탑에 새겨진 공적비문. 스님의 얼굴이 무섭게 표현된 것은 뛰어난 이방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사색이 드러난 것이라 해석이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역주한 한국불교전서 중 <해심밀경소>. 유식학 경전인 <해심밀경>에 대한 원족 스님의 해설인 <해심밀경소>는 신라 고승의 3대 저작으로 꼽힌다.

범어에 능통했던 원족 스님은 여러 번에 걸쳐 중의 역할을 맡았고, 만년에는 낙양 불수기사에서 실차난타 삼장이 80권 <화엄경>을 번역하는데도 참가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입적한 원족 스님의 법신은 향산사 부근에 다비를 치러 백탑이 세워졌다. 원족 스님의 제자들은 규기 일파의 해교지를 우려해 종남산 풍덕사에 따로 사리탑을 세워 그의 분골과 사리를 안치했는데, 1115년 송(宋)대에 지금의 흥교사로 옮겨졌다. 현재 흥교사 뜰에는 가운데 현장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왼쪽에 원족, 오른쪽에 규기의 탑이 세워져 있다.

원족 스님은 중국 불교의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이는 그의 사후 ‘사리탑명병서(舍利塔銘并序)’에 적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명사의 대덕으로 부름을 받고서 ‘성유식론소’ 10권, ‘해심밀경소’ 10권, ‘인왕경소’ 3권, ‘강반야관소연론’, ‘반야심경’ ‘무량의경’ 등의 소를 찬술하였으며, 현장

법사의 신비로운 전적을 도와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현장을 도와서 불법을 동쪽으로 흐르게 하고 무궁한 교법을 크게 일으킨신 분이다.”

원족 스님이 주석한 경론은 신라와 일본, 그리고 티베트까지 전해진다. 원족 스님에서 비롯된 서명화파의 유식이론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족 스님은 그 어떤 학자보다 많은 저술을 남겼다. 탑명(塔銘)에는 원족 법사의 저술이 기록되어 있다. 탑명에 의하면 원족 법사는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 10권, <인왕경소(仁王經疏)> 6권,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 <관소연론(觀所緣論)>,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 <무량의경소(無量義經疏)>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전하는 저술은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10권과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 1권, <인왕경소(仁王經疏)> 6권뿐이다.

특히 원족 스님의 저서인 ‘해심밀경소

<解深密經疏>’는 혜초(慧超)의 ‘왕오전국국전(往五天竺國傳)’, 원효(元曉)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함께 신라 고승의 3대 저작물로 세계 불교계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그가 저술한 <해심밀경소>에 의하면 어떤 역자가 잘못 번역한 것을 자주 지적하고 있으며 교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태도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원족 스님 만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원족 스님을 잇는 제자들인 승장, 도중, 도륜 스님들은 당 법상종과는 다른 별도 학파인 서명화파를 이루었다. 이 중 승장 스님은 범어 전문가로 유식 인명에 대한 여러 저술을 남겼으며 원족 스님 입적 후 사리를 나눠 종남산에 사리탑을 세워 숭모풍조를 확대했다.

도중 스님은 신라 효소왕 원년(692)에 신라에 귀국해 전문도를 바쳤는데, 도중 스님의 귀국은 신라 유학사상 전개에 큰 의미를

갖는다. 도중 스님의 사상은 태현 스님에게 계승돼 신라 법상종 성립의 사상적 배경을 이뤘다.

도륜 스님은 당대 유학사상을 집대성한 <유가론기>(705) 20권의 방대한 저술을 비롯한 18종 57권의 저작을 남겼는데 규기 스님의 법상종 정통설과 다른 견해를 보여 준다.

이처럼 원족 스님의 활동은 구법승들의 활동이 비록 본국에 귀국하지 않더라도 본국의 사상진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시안(西安)의 흥교사(興教寺)에 그의 탑묘가 남아 있으며 탑묘 안에 초상이 새겨져 있다. 초상을 보면 스님의 얼굴이 무척 무섭게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 어린시절 고국을 떠나 중국에서 수도자의 삶을 마친 스님의 고고함과 고독함 그리고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자신에게 무척 엄격하였을 것 같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위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黃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초출 2.배접 3.야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쫄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